

독서인증제를 통한 독서교육 평가

김동준*

<목 차>

1. '독서'의 위기와 '독서교육'의 문제
2. 독서평가, 그 오랜 관행을 넘어서
3. 독서인증제를 통한 독서교육의 길

1. '독서'의 위기와 '독서교육'의 문제

1) '책 속의 존재'들 책을 읽지 않는다

인간은 '책-속-존재'이다. 인간을 '세계-내-존재'라고 말한 하이데거의 말에서 세계는 곧 '책'이니까 말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서로 다른 세계를 책 속에서 발견한다. 수많은 책 속에서 발견한 수많은 세계 안으로 드나들면서 그때마다 다른 인간이 되어본다. 책 속에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고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그들과 만난다. 그때마다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간다. 아마도 이것이 인류가 책을 쓴 이래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책읽기를 강조한 이유일 것이다.

* 경기 안양고 교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현대문학 전공),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이사, 결독서능력평가연구원장

그러나 책읽기는 인간과 가깝지 못했다. 책읽기는 언제나 '계몽'과 '권장'의 대상이었고, 때로는 '강요'가 뒤따르기도 하였다. 가끔씩 인간에게 '독서 욕구'가 '식욕'이나 '성욕'처럼 본능적 유전자로 저장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 전체체가 항상 책읽기의 욕망으로 넘쳐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독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교육'의 대상인 경우가 더 많았다. 우리들이 읽지 않았으면 하는 일군의 책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만큼 책읽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책읽기가 필요한 시기에 읽어야 할 책을 읽는 것을 싫어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태풍에 버금가는 '독서열풍'을 경험하고 있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한 목소리로 '독서'를 외치고 있다. 한 편으로 반갑지만 한 편으로는 우려되는 바도 있다. '느낌표'라는 오락프로그램이 대중독서의 척도를 제시하는 양 하는 것은 물론, '행복한 책읽기', '책마을 산책', 'TV 책을 말하다' 등이 모두 이 사회의 책읽기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얼마나 이 사회의 책읽기가 무너졌는지를 말하고 있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책읽기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2007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독서활동'을 생활기록부에 작성하고 2010년 대입부터는 독서활동이 전형자료로 반영한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으로 독서 열풍을 몰고 온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책읽기는 그리 온전하지 못하다. 책읽기의 강조는 있으나 독서교육은 없다는 한탄도 있고, 책을 읽고 싶지만 시설이 부족하고 책읽기를 시킬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모든 것이 입시 탓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학생들도 책읽기를 싫어한다. 설령 읽는다고 해도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다. 한마디로 '독서'의 위기이다. 여기서 우리는 독서교육의 핵심을 찾아야 한다. 읽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책을 가까이하게 하고, 책 속에서 삶과 깨달음과 감동을 얻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격의 형성이라는 효과까지 얻는 성숙하고

1) 그 외에도 책읽기와 관련된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능숙한 독자를 길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독서교육의 궁극적 목표²⁾인 것이다.

2) 책을 읽게 하는 독서교육이 필요하다

어떤 세상이 와도 그 중요성이 살아남을 것 하나를 들라면 그것은 '독서' 일 것이다. 책은 우리들 인간이 지상에서 이루어 놓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경이로운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책을 읽어라'이고, 가장 많이 하는 말도 '책을 읽어라'이다. 그만큼 독서는 중요시되었고 생활 그 자체였다. 학습이나 인격의 현성, 문화의 창조도 독서가 원천이었다. 심지어 우리는 휴식도 독서로 취하였다.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정보)을 읽고, 부모님의 말씀을 (새겨)읽고, 교과서(지식)를 읽고, 문제집을 읽고(풀고), 선생님들의 설명을 읽고(이해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고(의사소통), 시내의 간판을 (비판적으로)읽고, 음식점의 메뉴를 읽고(선택하고), 텔레비전을 읽고(이해하고/파악하고), 소설과 시를 읽고(감상), 그림을 읽고(감상), 영화나 텔레비전, CD-ROM을 통해서 정보를 읽고(구하고),*읽고 또 읽고…… 그렇게 말이다.

책이 인간의 지혜를 모은 창고라고는 하나, 그 책이 저절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책이 저절로 자연의 신비를 일러주거나 지식과 기술을 알게 하지도,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인격을 함양시키거나 인생의 지혜를 깨우쳐 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인격을 고양시키며 삶의 지혜를 구하는 도구로서 책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책을 읽게 하는 일이다. 독서는 '읽', '깨달음', '감동'이라는 세 가지 즐거움을 주는 일이다.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읽'이다. '읽'이 전제되지 않

2) 독서교육의 이론에서 말하는 독서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능숙한 독자를 길러내는 일이다. 능숙한 독자인 글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인지적 측면과 책읽기의 태도와 책읽기를 통해 형성된 바람직한 인격형성이라는 정의적 측면 모두에서 뛰어난 독자를 말한다.

고는 '깨달음'도 '감동'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독서는 늘 내용의 온전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이 지점이 앞서 말한 '독서교육'의 궁극적 목표와 만나는 접점이다. 독서는 '교육'인 것이다.

책읽기의 방법에 대한 이론들이 많다. 책읽기를 강제하지 말자는 것과, 초·중·고의 학년에 알맞은 도서를 선정하여 즐겁고 유익하게만 읽도록 안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즐겁게 찾아 읽는 학생들은 너무 적다. 그리고 책은 즐겁게만 읽을 수도 없다. 모든 책이 다 흥미롭지만은 않으니 말이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 책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읽어야 할 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그렇게 작성된 목록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읽도록 유도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2. 독서평가, 그 오랜 관행을 넘어서

'책'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밀접하지만 책의 기능은 많이 달라졌다. 책이 인격도야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때도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이제 '책'의 자리는, '책'의 기능은 다른 매체들이 많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그만큼 책을 읽게 하는 길, 즉 독서교육의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예전엔 외국여행을, 외국의 정보를 오로지 책에서만 구한 사람도 있었다. 오락과 재미도 '책'에서 구했다. 슬픈 대중소설이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러나 이제 텔레비전은 그리고 실제로의 세계여행은 책의 자리를 재정립하

3) 교육학의 이론서에 따르면 우리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모든 활동은 교육의 본질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는 교육과정이라고 일컬어진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개념이 논리적으로 함유하는 '의도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 교육과정은 체계적인 교육 특 징 갖는 규범이며 전략이다. 특히 우리가 공교육이라 부르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은 교육적 판단과 계획에 적용되는 모든 규범적 원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실천을 위한 방법적 조건들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이란 이름으로 전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즉, 교육이란 무엇이며, 왜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밝혀놓은 것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독서는 '계획-실천-평가'라는 과정을 밟아가는 '독서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독서교육의 방향과 그 방법이 달라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1) 독서교육, 다양성이 생명이다

우리에게 독서지도방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연구·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독서평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⁴⁾ 이처럼 우리는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독서평가' 분야에는 하나의 금기사항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독서는 내면의 감응을 가져오는 것이라 하여 평가에 주저해 온 것이다. 개인적 감흥과 즐거움을 어찌 평가하느냐는 것이다. 물론 문학적 읽기의 한 특성 중에는 개인적 감흥으로 끝날 수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책은 문학작품만도 아니지만 문학작품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감흥을 느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도 글쓴이와 독자 사이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교에서의 독서는 다르다.

만일 한 권의 책을 읽은 독자들이 책의 내용을 잘못 읽어 버리거나, 아예 반대로 읽어버린다면 어찌되는가? 그리고 책읽기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아전인수(我田引水)의 도구로만 여긴다면 또 어찌되는가? 더구나 읽기를 학습하는 단계인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내 맘대로 방식'의 읽기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읽기를 학습하는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독서평가가 중요한 이유이다. 학생들의 우열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가결과에 미치는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독서평가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자. 잘못된 습관이라면 고쳐야 한다. 그래야 독서교육도 온전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4) 독서교육에 관한 논문들은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을 비롯하여 한국독서학회, 한국국어교육학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사)전국국어교사모임 등에 의해 주도 되고 있으며, 각시·도 교육청에서도 관련자료들을 장학자료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독서교육지도방법에 대한 연구물에 비해 독서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평가란 교과과정에 의거해서 시행한 교육의 성취도를 알아보는 작업이라는 일반론에도 불구하고 독서평가를 터부시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목표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세상의 바른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교육의 목표보다는 방법에만 매달리는 경향도 많다. 앞에서 언급한 독서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고려할 때 독서교육의 방법은 다양성이 생명일 수밖에 없다.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책과 다양한 목적을 바탕으로 하는 독서교육이 기 때문이다.

2) 독서평가, 독서력 확인이 우선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의 학습능력은 독서능력에 달려 있다. 그래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독서능력인 사고력 평가가 일반적이다. 특히 언어영역의 경우는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독해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다. 독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무엇'을 '왜'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독서의 결과를 확인해 볼 것인가 독서의 수행과정을 평가해 볼 것인가에 따라 그 방법은 달라진다. 그러나 독서평가의 주된 목적은 독서교육의 주된 목적인 독서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독서성취도평가라 말할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 독서능력평가인 것이다. 또한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행위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해 가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다. 이는 독서수행평가라 할 것이다.

독서수행평가는 독서포트폴리오가 적당할 것이고, 독서능력평가는 독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독서능력평가시험이 적절할 것이다. 평가할 요소에는 독서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력이나 내용파악이라는 기본적인 독해능력에서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에 해당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능력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독서평가는 수행평가와 능력평가를 병행해야 한다. 수행평가는 연간 계획에 따라 독서 수행의 전 과정을 점검하면 될 것이고, 능력평가는 역시 연간 계획에 따라 두세 차례 평가를 실시하되 개인별 독서능력에 맞추어 단계

별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독서동기의 유발은 물론 독서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개인별 발달단계에 대한 대응과 도서수준에 대한 대응이 병행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3. 독서인증제를 통한 독서교육의 길

1) 독서인증제, '독서'가 목적이다

독서인증제는 독서평가의 하나이다. 독서인증제를 시행하는 목적의 제일 순위는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여 자율적으로 독서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함이다. 이렇게 자율적인 독서 습관이 형성되어 생활화되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되고,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독서분위기가 조성되어 독서교육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단위 또는 전국단위 독서인증절차를 통해 학생의 독서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독서학습의 과정에서 학생 본인과 교사가 학생의 현재 독서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독서능력 부족의 근본적 원인을 알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읽기 자료 선정하여 제공하거나 바람직한 독서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독서인증제는 실제로 '책을 읽는' 독자를 지향하는 일이다.

독서인증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성취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성취 기준에 준하며(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초·중·고 각 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독서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사고력(어휘력,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사단법인 전국독서새물결모임의 독서인증제 평가기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독서능력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라 할 수 있는 '독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평가문항으로 개발한다. 독서 영역의 내용('본질-원리-

태도) 중 중요한 또 하난 부분인 '독서 태도'의 부분은 지필 평가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이는 평가 문항에서 제외하고 독서 수행평가로 대신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독서인증평가를 표준화 검사의 일환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박인기(1999.7)는 표준화검사와 실기평가, 수행평가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하였다.

	표준화검사	실기평가	수행평가
배경철학	심리측정적 패러다임	두 패러다임의 중간적 관점	맥락적 패러다임
평가목적	학생들의 규정과 판단	학생들의 규정과 판단	학생들의 이해와 진단
평가대상	평가 가능한 지식과 이해 능력	선언적, 절차적 지식에 대한 학생들의 직접적 수행	선언적, 절차적 지식에 대한 학생들의 직접적 수행
평가상황	교수학습 시간 이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평가상황	평가를 위한 제한적 시간을 설정하여, 제한된 횟수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위적 평가상황	교수학습과 통합된 자연스러운 평가상황과 지속적인 평가강조
평가방법	양적평가	양적평가	질적평가
	객관식 지필평가	실험실기, 관찰, 논술형검사, 구술시험, 실기시험 등	실험실기, 관찰, 논술형검사, 구술시험, 실기시험 등

결과적으로 독서평가는 독서의 목적과 특성, 독서 과정과 층위에 따른 독해의 원리를 알고, 그러한 독해 원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독서를 하며, 전략적인 독서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독서 원리를 익히고 자신의 독서 활동을 점검하는 태도를 지니게 하는 일이다. 그 평가는 독서의 목적(정보, 설득, 친교, 정서)과 특성(어휘력,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감상적), 과정(독서 전, 중, 후), 그리고 층위(단어, 문장, 문단, 글)별로 나누어 분절적인 평가를 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독해 원리에 대한 이해도와 성취도를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독서평가를 실시하려면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발문을 중심으로 평가도구를 개발해야하며, 평가는 실제 글을 자료로 하되, 평

가요소를 세분하여 분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알 수 있다.

2) 독서인증제에 대한 오해는 말 그대로 오해이다

지난해 우리는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이하 독서새물결)이 시도한 독서인증제(독서능력평가시험)과 관련해 독서평가를 둘러싼 활발한 논쟁을 경험하였다. 사실 그 논의는 독서새물결이 주관한 독서평가에 대한 곡해와 일방적인 반대로부터 출발하였다. 아무튼 독서평가에 관한 논의는 그 자체의 문제를 벗어나 교육 전반에 대하여 논의로까지 이어질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니는데, 이는 우리의 교육이 평가 방법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좌우되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며, 어떤 제도이건 그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먼저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이 있는 곳에 평가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우리의 책읽기 시도도 독서교육으로 이름 하는 한 그 교육적 성과와 조정을 위한 평가는 불가피하다. 지금 독서새물결이 시작한 독서인증제(독서능력평가)는 기왕의 독서교육에서 제시하는 독서평가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평가제도는 독서교육 평가와 관련한 유일한 또는 최고의 평가방법이 아니라 많은 평가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 독서인증제의 출발점에서 우리 독서새물결도 고민은 있었다. 먼저 독서가 인증의 대상이 될까의 부분이다. 사전에 의하면 인증(認證)이란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함을 말한다. 그리고 검정(檢定)이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조건을 검사하여 결정한다는 뜻이다. 독서는 말 그대로 '책읽기'이다. 그리고 그 책읽기의 원리와 방법을 지도하는 교과가 독서교과이다. 책읽기의 원리와 방법을 지도하여 숙련된 독자를 지향하는 것이 독서교육이다. 교육(敎育)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이다. 왜 이렇게 자세히 풀이하는가하면 독서가 있고 독서교육이 있으면 여기에 평가가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인증제가 독서교육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독서에도 교육이 필요한 시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던 것은 그간의 평가 방식에 대한 우려 때문일 줄로 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던가?

책읽기라는 것이 어쩌면 독자가 자기만의 방법으로 독해하고 자기만의 느낌을 얻는 것으로 족하다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자기만의 느낌으로만 책을 읽어도 된다면 독서교육이 왜 필요하겠는가? 그러면 책을 추천하는 일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어떤 특정한 책을 읽었으면 하고 추천하는 것은 특정한 책을 읽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를 바람이 아닌가? 그럼에도 독서인증제에 대해 감정적인 비방을 쏟아내는 일은 안타깝기까지 하다. 그것도 인증제의 핵심이 아닌 '인증도서 선정의 독점적 권한' 운운하면서 본질을 벗어난 비방 세례를 퍼붓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혹이 일기 십상이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책을 읽고 내용을 묻지 말라는 대목이다. 책 내용을 묻는 문제로 독서능력을 잴 수 없다? 물론 책 내용을 묻는 것만으로 독서능력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책을 읽게 하고 그 책의 내용을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했는지를 묻지 말라는 것은 독서를 하지 말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3) 독서인증제, 누구나 하던 일, 이렇게 하자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또 독서평가와 관련하여 독서인증제가 지고지선의 방법은 분명 아니지만 그리 새삼스러운 제도도 아니다. 너무도 많은 학교와 너무도 많은 나라들이 시행해 왔고, 너무도 많은 선생님들이 실천해 왔던 일이다. 학교마다 많은 선생님들은 읽을 책을 제시해 주고 그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칭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행평가 점수로 활용하기도 한다.

일반 선생님들 말고도 많은 학교들이 독서평가의 일환으로서 독서인증제를 실시해 왔다. 또한 앞으로 새롭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진 학교나 교육청도 많다. 다음은 많은 곳에서 실행하고 있는 독서인증제의 사례들이다.

시행 주최	내용
강원대학교	졸업인증제 중 독서인증제운영
부산시·강원도교육청	강원대학교 부설 기관인 한국독서인증센터와 부산광역시, 강원도교육청에서 독서인증제를 운영, 각년에 이미 부산과 강원 800여 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마치고 금년에 확대 예정
교육부	독서우수사례-독서인증제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인증제-역점 사업으로 운영
경기도교육청	독서인증제-역점 사업으로 운영
학교 단위	독서인증제-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미 시행-2004년에 강원예고에서 독서인증제 시범학교 발표
과학문화재단	과학도서인증제-온라인상의 독서인증제
KBS	한국어 능력시험
서울대학교	국어경시대회
부산시	학원연합회의 독서인증제
독서능력평가원	대전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온라인상에서 독서능력평가를 통한 독서인증제 운영

독서인증제라는 독서평가방법은 독서교육에 따른 성취도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지도하기 위한 교육적 행위이다. 그 결과 독서인증평가 행위는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독서교육이 생긴 이래 줄곧 시행되어 왔던 일이며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독서새물결을 비롯하여 많은 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독서인증제는 독서능력의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독서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독서교육의 하나이다. 독서인증제는 독서교육을 통하여 학습자가 성취해야할 수준 혹은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그것은 텍스트와 자신, 우리 문화 및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학과 비문학, 고전과 현대를 망라한 광범위한 독서를 바탕으로 철학적, 윤리적, 심미적 측면 등 인간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며, 언어활동 속에서 자신의 독서 경험을 창의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 공동체에 유식하고 사려 깊고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능숙한 독자이다.

독서인증제는 독서평가의 하나이다. 교과단위, 학교단위, 전국단위 어떤

형태로든 시행이 가능하다.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독서결과를 평가하여 독서 능력을 인증해 주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활동과 독서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학습자의 독서 발달 단계에 맞는 평가도구를 제작하여 활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독서활동은 수행평가로 점검하고 독서능력은 표준화검사인 지필평가로 측정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독서 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독서인증제를 시행해 본 경우, 자기 독서 능력을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음으로 해서 독서동기유발은 물론 올바른 독서습관이 형성되었고 독서력 평가가 창의력과 사고력, 문제 해결력의 신장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번 읽은 책을 다시 읽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학습 독서 태도가 바람직하게 습관화되기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제는 단위 학교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독서 문항 문제은행의 개발과 독서능력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대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시점이다.

다음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독서인증제의 개요이다.

순서	단계	내용			
1	계획 수립	학교독서지도위원회			
2	인증방법 선택	영역	배점	비고	독서량이나 표현력, 인증등급 등은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한다.
		연간독서량	30점	5단계	
		독후감 작성능력 및 표현력	20점	4단계	
		독서인증시험	50점	실득점 점수	
	인증등급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70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3단계		
3	필독/인증도서 선정	교과별 협의회 선정 → 독서지도위원회 조정			
4	인증시험문항 출제	교과영역별 담당교사가 책의 내용을 분석하여 인증 문제를 출제 문항 유형과 문항수 등은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다.			
5	평가/결과 분석	개선계획 수립			

다음은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이 도서선정과 출제에 참여하고 한국독서능력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는 독서인증제의 개요이다.

단계	내용				
대상	전국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주최	한국독서능력평가원				
도서선정/출제/평가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인증 대상도서 및 평가방법	인증 급수	도서권수(누계)	문항수	시간	인증기준 70점 이상 (급수별 상위 합격자에게는 최우수상, 우수상 등 시상)
	10급	30권 (30권)	40문항	60분	
	9급	30권 (60권)	40문항	60분	
	8급	30권 (90권)	50문항	60분	
	7급	30권 (120권)	50문항	80분	
	6급	30권 (150권)	50문항	80분	
	5급	30권 (180권)	60문항	80분	
	4급	30권 (210권)	60문항	80분	
	3급	30권 (240권)	60문항	80분	
	2급	60권 (300권)	100문항	120분+60분	
1급	100권 (400권)	100문항	120분+90분		
필독/인증도서	제7차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관련 도서 (급수별 선정 도서는 홈페이지 참조 http://readingkorea.org)				
응시 및 출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별 대상 도서목록을 보고 개인별로 자유롭게 응시급수 선택 · 문항 출제는 해당 급수에서 90%, 그 하위 급수에서 10%로 출제 · 출제 문항은 객관식 80%, 단답형 주관식 10%, 서술형 10% · 급수별 집중 도서를 5권씩 두어 운영(전체 배점의 33% 내외) · 집중도서 문항의 일부는 서술형 문항으로 평가 · 2급 이상의 인증 평가는 논술 및 구술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하위 인증 급수 자격증 소유자만 응시할 수 있음(2005년도에는 미실시) 				
인증시험 일정	제3회 시험: 2005. 6. 11(토) 15:00			인터넷/우편/팩스 접수 가능	
	제4회 시험: 2005. 10. 22(토) 15:00				
평가결과 활용	각 개인별 학교별 독서 진단 및 독서교육 개선자료로 활용				

4) 독서인증제, '독서능력'을 길러주는 하나의 길이다

인간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인류 보편의 방법은 상벌(賞罰)이다. 상벌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함으로써 가능하다. 그것도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일 때 그 효과는 크다. 학생들에게 평가는 일종의 판단이다. 무엇을 더 주어야 하고 어느 쪽을 더 보강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뜻이다. 오랜 교직의 경험을 가진 분들은 모두가 평가의 중요성을 말한다. 그것도 실질적인 평가일 때 그 효과가 크다는 것도 모두가 경험해온 바이다. 특히 잠재적인 능력까지도 평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만큼 평가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독서평가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의 책읽기는 모두 다르다. 다르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반응과 다양한 깨우침은 책읽기 지도가 추구하는 본질이기도 하다. 문제는 평가가 없는 일은 여벌의 옷처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일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독서는 여벌의 옷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품이다. 따라서 독서가 평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무조건 반대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확인하건대 독서는 평가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평가의 과정과 평가 문항의 개발과 같은 부분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일만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독서로 이끌어 들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독서인증제를 추진하는 것은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이고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확인하여 학교마다 수업의 질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이다. 독서능력이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독서능력이라는 보다 의미 있는 학업성취도를 제공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